반짝반짝 빛나는 ‘할리우드 샛별’ 이정재

남우주연상 거머쥐며 ‘제3 전성기’
스필버그 감독·브래드피트 등 속한
美 3대 에이전시 손잡고 본격 진출
영화 감독 데뷔·주연작 ‘헌트’ 주목



배우 이정재와 정호연(왼쪽부터)이 2월 28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산타모니카에서 열린 제28회 미국배우조합상(SAG) 남우주연상과 여우주연상을 받은 직후 손을 맞잡고 수상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LA(미국) | AP·뉴시스

데뷔 30년 차 배우 이정재가 제3의 전성기를 열어젖혔다. 미남 청춘스타에서 글로벌 흥행 배우로 거듭나며 향후 행보에 대한 기대를 모은다.

이정재는 그 첫걸음을 2월 28일(한국시간) 제28회 미국배우조합상(SAG) 남우주연상으로 내디뎠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글로벌 흥행 덕분이다. 세계적인 시선을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는 데 성공했다. 실제로 미국 뉴욕타임스는 그를 ‘문화계 샛별’로 꼽으며 향후 활동을 기대했다. 이정재는 “샛별로 (세계 시장에서) 다시 시작해보고자 한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데뷔 30년 만에 ‘할리우드 진출’

이에 미국 3대 메이저 에이전시인 CAA가 화답했다. 이정재는 CAA와 계약을 맺고 배우로서 본격적인 글로벌 행보에 나선다.

CAA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을 비롯해 톰 행크스, 브래드 피트, 메릴 스트립, 조지 클루니, 라이언 고슬링 등 할리우드 톱스타들이 소속된 미국 최대 규모의 엔터테인먼트·스포츠 에이전시다. 영화 ‘헌트’를 연출하며 감독으로 데뷔하고,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를 통해 영화·드라마 제작자로서도 경력을 쌓고 있는 이정재는 CAA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미국 등 해외시장에서 배우는 물론 프로듀서와 연출자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칠 전망이다.

관심은 패션계에서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명품 브랜드 구찌의 글로벌 앰버서더로 위촉된 이정재는 한국배우로는 처음으로 메인 글로벌 캠페인 영상에 등장해 마일리 사이러스, 스눕 독, 자레드 레토, 비니 펠드 스타인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청춘스타에서 글로벌 흥행 배우로…

이처럼 데뷔 30년 만에 새로운 배우 인생의 변곡점을 맞은 이정재는 1993년 SBS 드라마 ‘공룡선생’으로 데뷔해 ‘모래시계’를 통해 본격 스타덤에 앉았다.

데뷔 초 잘생긴 외모에 비해 연기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그는 영화 ‘정사’ ‘시월애’ ‘선물’ ‘오! 브라더스’ ‘태풍’ 등 멜로, 액션, 코믹, 사극 장르를 가리지 않고 활약했다. 1999년 ‘영혼의 단짝’ 정우성을 만난 ‘태양은 없다’로는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거머쥐었다.

2010년대에 위상을 더욱 다졌다. 2010년 임상수 감독의 ‘하녀’로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레드카펫을 밟았고, 2012년 영화 ‘도둑들’로 천만 배우 반열에 올랐다. 2013년 ‘신세계’와 ‘관상’으로 평단과 관객의 마음을 모두 사로잡으며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이후 선보인 영화 ‘신과함께’ 시리즈,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등으로도 흥행 성과를 거뒀다.

이제 걸음은 국내를 넘어 해외로 향하고 있다. 감독 데뷔작이기도 한 주연작인 영화 ‘헌트’가 첫 시험 무대이다. 안기부 요원과 남파 간첩의 이야기를 그리는 첩보 액션 드라마로, 이정재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활동상을 예약해놓았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데뷔작 불구 장악력 굿”…세계 홀린 정호연

첫 출연 드라마로 여우주연상 수상
“모델 활동으로 높은 인지도도 한몫”
할리우드 유명 제작사들 관심 폭발

연기를 시작하자마자 ‘글로벌 올 킬’이다.

정호연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으로 2월 28일(한국시간) 미국배우조합상(SAG) 여우주연상 트로피를 안으면서 화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0년 모델로 데뷔했지만, 연기 무대는 지난해 9월 선보인 ‘오징어게임’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신인 연기자로서 제니퍼 애니스턴·리즈 위더스푼(더 모닝쇼) 등 쟁쟁한 할리우드 스타들을 제치고 트로피를 쥔 원동력은 모델 활동으로 쌓아온 인지도, ‘오징어게임’의 글로벌 흥행 파워 등이 꼽힌다.

1일 김형석 영화평론가는 정호연이 “미국 뉴욕,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 해외 주요 패션 무대에 서 왔다”면서 “연기자로서는 신인일지언정 해외 엔터테인먼트업계에서는 이미 높은 인지도를 갖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기에 대한 마음가짐, 작품에 임하는 자세도 프로에 가깝다. 이는 연기에도 잘 드러난다”면서 “첫 드라마임에도 베테랑들에게 밀리지 않는 장악력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정덕현 대중문화 평론가는 이번 수상이 “작품의 인지도가 좌우한 경향도 크다”면서 “최근까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드라마의 파급력을 SAG가 인정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가 ‘오징어게임’에서 연기한 캐릭터의 “강렬함”에 주목했다.

정 평론가는 “가족을 위해 생존게임에 참여하는 탈북자 캐릭터가 특히 시청자 관심을 받았다”면서 “최근 인지도나 경력에 상관없이 작품의 완성도에 더욱 집중해 연기자를 캐스팅하는 흐름도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정호연은 해외 연기 활동에도 청신호를 켰다. 미국 에이전시 CAA와 지난해 11월 전속계약을 체결한 그에게 이미 할리우드의 여러 유명 영화·드라마 제작사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김형석 평론가는 “마블영화 ‘이터널스’ 등 많은 할리우드 작품이 언어와 인종 등을 뛰어넘는 캐스팅을 선보이고 있다. 다양화가 세계 트렌드로 떠오른 시점이고, 정호연의 영어 실력도 뛰어나 파급력을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SAG 3관왕’ 오겜…에미상도 품을까

〈美배우조합상〉

남녀주연상 이어 앙상블상도 수상
9월 개막 ‘에미상’ 수상 여부 주목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이 미국배우조합상(SAG)의 남녀주연상과 함께 뛰어난 액션 장면을 연출한 작품에 주는 스턴트 앙상블상 등 3관왕을 차지하면서 에미상을 겨냥하게 됐다. 매년 9월 열리는 ‘프라임타임 에미상’을 가리키는 에미상은 미국 TV예술과학아카데미가 주관하며, ‘방송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릴 만큼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다.

‘오징어게임’과 출연진의 에미상 수상 가능성은 이미 앞선 성과에서 나온다.

지난해 9월 세계 190여 개국에서 공개된 드라마는 글로벌 흥행 1위에 오르면서 신드롬급 인기를 끌었다. 이에 힘입어 미국 고섬 어워즈의 ‘40분 이상 획기적 시리즈’로 호명돼 첫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피플스 초이스 어워즈의 ‘올해의 몰아볼 만한 쇼’로 선정됐다.

올해 1월 열린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는 오영수가 한국배우 최초로 남우조연상을 받기도 했다.

최근 SAG 수상으로 이어지면서 ‘오징어게임’의 에미상을 향한 행보는 더욱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14일 미국방송영화비평가협회가 주관하는 크리스틱 초이스 어워즈에서도 드라마 부문 작품상과 남우주연상 등을 노리고 있다.

연이어 배우들과 비평가들로부터 상을 받는다면 이들이 TV예술과학아카데미의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미상 수상을 노려볼 만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SAG나 크리스틱 초이스 어워즈 등이 ‘미리 보는 에미상’으로 불리는 이유다.

실제로 2020년 ‘기생충’의 배우들이 비영어권 영화 최초로 SAG 최고상인 앙상블상과 크리스틱 초이스 어워즈의 감독상 등을 받은 데 이어 아카데미상으로 향했다. 또 지난해 영화 ‘미나리’의 윤여정도 SAG 여우조연상을 받고 크리스틱 초이스 어워즈 후보에 오른 뒤 오스카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이와 관련해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는 SAG 최고상인 앙상블상을 가져간 HBO 드라마 ‘석세션’과 ‘오징어게임’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며 에미상 레이스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할리우드 리포터는 ‘TV 비평가들이 에미상 수상 가능성이 높다고 점친 배우’로 이정재를 포함시켰다. 영화·드라마 관련 각종 시상식의 수상 결과를 예측하는 사이트인 골드더비도 ‘오징어게임’이 작품상·남우주연상(이정재)·여우조연상(정호연)·남우조연상(오영수)에 노미네이트될 것으로 전망했다. 에미상 부문별 후보작(자)은 7월 발표된다.

이승미 기자



안보현 안효섭 김재욱

월화극 청춘스타 ‘맞짱’

안보현 ‘군검사…’ 안효섭 ‘사내맞선’ 박빙
김재욱 신작 ‘크레이지 러브’ 7일 첫방 가세

배우 김재욱, 안보현, 안효섭 등 ‘청춘스타’들이 월화 시청률 3파전을 치른다.

안보현과 안효섭은 각각 tvN ‘군검사 도베르만’과 SBS ‘사내맞선’을 통해 먼저 맞붙었다. 2월28일 나란히 첫 방송해 각각 5.3%, 4.9%(이상 닐슨코리아)를 기록했다. 안보현이 한발 앞서 출발했지만, 아직 승패를 가늠하기는 이르다는 시선이 많다. 방영 초반인 데다 두 드라마가 각각 법정드라마와 로맨스를 표방하는 등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이들은 각자의 강점을 극대화했다. ‘군검사 도베르만’의 안보현은 돈을 벌기 위해 군검사가 된 도배만으로 등장한다. 넷플릭스 ‘마이 네임’ 등으로 드러낸 카리스마를 다시 한번 발휘한다. 군사법원이라는 독특한 배경 속에 다양한 사건을 풀어간다.

안효섭은 ‘사내맞선’으로 로맨스 강자의 자리를 굳힐 태세다. 유명 식품회사의 대표로, 재벌가 상속녀인 친구의 부탁을 받고 맞선 자리에 나온 김세정과 로맨스를 그린다. 앞서 SBS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홍천기’ 등 로맨스 드라마로 이름을 알린 그는 이번에도 부드러운 이미지를 부각해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들의 경쟁에 김재욱이 가세한다. 7일 KBS 2TV ‘크레이지 러브’를 내놓는다. ‘일타 강사’ 역을 맡아 시한부 삶을 선고받은 비서 정수정과 티격태격 로맨스를 펼친다. 2019년 tvN ‘그녀의 사생활’ 이후 3년 만에 로맨스 장르를 들고 안방극장에 나서 기대를 높인다. 유지혜 기자



엔믹스

JYP 신인 걸그룹 ‘엔믹스’ 데뷔

지난달 싱글 ‘애드 마레’ 발표 첫주 22만장 신기록

7인조 신인 걸그룹 엔믹스(NMIXX)가 당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엔믹스가 1일 데뷔 싱글 ‘애드 마레’(AD MARE)를 정식 발표하고 가요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들은 ‘걸그룹 명가’로 불리는 JYP엔터테인먼트가 원더걸스, 미쓰에이, 트와이스, 있지 등에 이어 3년 만에 선보이는 팀이다. 그런 만큼 데뷔전부터 가요계 안팎의 큰 관심을 모았다.

사실 엔믹스는 지난달 22일 데뷔 싱글을 발매했다. 하지만 한 멤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데뷔를 한 주 미뤘다. 그 사이 이들은 자신들에 관한 관심을 음반 판매량으로 입증했다. ‘케이팝 스타의 인기척도’로 꼽히는 발매 첫 주 판매량(초동) 22만 7399장(한터차트 기준)을 기록하며 역대 걸그룹 데뷔 1위에 올랐다. 이들의 데뷔 음반은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은 채 한정판으로 내놓은 ‘블라인드 패키지’이다.

엔믹스는 이날 데뷔 온라인 쇼케이스에서 “블라인드 패키지를 구매할 분들이 계실지 걱정했는데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다”면서 “그분들 앞에서 공연하면 어떤 느낌일까 생각하면서 소름이 돋았다. 케이팝 팬과 대중의 믿음이 거둔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777번 봐도 또 보고 싶은 그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룹이름은 나우(Now)·넥스트(Next)·뉴(New)·미지수 등을 의미하는 문자 ‘N’과 다양성을 상징하는 ‘믹스’(MIX)를 합쳐 “새로운 시대를 책임질 최상의 조합”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이들은 “멤버 모두 보컬, 댄스, 비주얼 어느 것도 뒤지지 않는 올라운더(allrounder)이다.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